



즉시 배포용: 2020년 1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민에게 독감이 아직 유행 중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는 미발견

독감 시즌이 시작된 이래로 실험실에서 확인된 독감 사례 및 입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독감 주사 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장소는 [여기](#)에서, 지역 내 독감 사례는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및 지역 보건국, 의료 관계자들에게 뉴욕 주민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또한 뉴욕 주민들에게 계절성 독감의 지속적인 위험을 상기시키고, 두 가지 모두를 예방하기 위해 권장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11명의 샘플을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로 보냈습니다. 일곱 명은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네 명은 여전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감의 경우, 10월에 독감 시즌이 시작된 이후 실험실에서 확인된 독감 사례와 입원 건수가 매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감 시즌은 주로 10월부터 5월까지이며, 2019-20 시즌은 아직 피크 상태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없지만, 우리는 뉴욕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거 이러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손 씻기, 아픈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는 등 독감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접촉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최신 인플루엔자 관리 보고서는 계절성 독감의 유행이 뉴욕주 전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그 이전 주보다 팔 퍼센트 증가한 수치인 **2,015명**의 뉴욕 주민이 입원하였으며, 독감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독감으로 인한 입원 사례가 **11,539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실험실에서 확인된 **15,012건**의 독감 사례가 주 보건부에 보고되었으며, 이 수치는 그 전주보다 **11 퍼센트**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실험실에서 확인된 독감 사례가 총 **72,385건** 보고되었으며, 독감으로 인한 아동 사망이 세 건 발생했습니다. 인플루엔자 활동 데이터는 [뉴욕주 독감 추적기\(New York State Flu Track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감 추적기는 지방, 지역 및 뉴욕주 전체 인플루엔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뉴욕주 건강 커넥터\(New York State Health Connector\)](#)의 대시보드입니다.

1월 3일, 뉴욕주 보건부는 주 전역에 [보건 권고](#)를 발행하여 건강관리 제공자에게 뉴욕주 전역에서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 권고는 공급자가 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 접종 환자의 효과를 선전할 것을 장려합니다. 독감 백신의 효과는 상이할 수 있지만 올해 독감 백신은 이번 시즌에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에 대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부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독감이 널리 유행하는 가운데,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리고, 독감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집에서 쉬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면 독감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실험실에서 확인된 독감 입원의 증가는 **Zucker** 박사가 12월 뉴욕주 전역의 [독감 유행을 선포](#)한 이후의 일입니다. 이 발표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의료진은 상시 환자가 있는 곳에서는 외과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주 보건부는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 백신은 2세 미만의 어린이, 임산부 및 65 세 이상의 성인 등 인플루엔자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천식이나 심장병과 같은 기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화학 요법이나 만성 스테로이드 사용과 같은 약물 또는 질병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해진 사람들도 독감에 걸릴 위험이 더 많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환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예방 접종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없지만 인플루엔자의 경우와 동일한 간단한 예방 조치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건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의료 시설, 임상 실험실, 근무자 및 지역 보건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여 발병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을 나타내며 중국 우한 지역을 여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병원, 근무자 및 지역 의료 기관을 위한 일련의 정보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매일 업데이트를 제공받으며 질병통제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과거 성명서: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issues-update-novel-coronavirus-one-more-new-yorker-identified-testing-bringing>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issues-update-novel-coronavirus-two-more-new-yorkers-identified-testing-bringing>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tates-continued-response-novel-coronavirus-three-more-individuals-ar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outlines-state-response-first-two-confirmed-cases-novel-coronavirus-united>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